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AI로 인한 위기 극복의 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안 병 선 과장

1. 서론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2~3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생의 경우 전국 오리생산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전남 나주와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종오리를 포함 약 2,300천수에 달하는 오리가 살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호황을 누리던 오리산업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역상황 및 오리사육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AI 발생현황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 2010.12.29일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과 전국 익산종계장에서 첫 발생하여 2011.3.21일 현재 총 6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50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남의 경우 2011.1.3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하여 총 8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하였다.

3. 발생원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이번 고병원성 AI의 유입원인을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가금사육농장에서의 발생 이전에 이미 충남 천안, 전북 익산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으며 전남 역시 영암과 인접한 해남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동일한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매년 철새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었으며 긴장했던 방역의식이 느슨해 질 무렵인 2~3년을 주기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AI 발생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차단방역과 이를 위한 유입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

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 농장주 및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 축사는 물론 농장 안과 밖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르고 있는 가축은 매일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질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AI 발생국 등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만 상주 검역관에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아야 하며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축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철새도래지나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금지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농장입구에서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②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차단

- 축사, 사료창고 등에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축사주변에 음식물이나 사료찌꺼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열하지 않고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야생조류 분변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철새도래지 인근 논·밭 경작자들이 가금사육농가를 방문하는 일을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경고 표시띠를 설치하

여야 한다.

- 농장출입구에 소독시설,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은 물론 출입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의사, 동물약품상, 왕겨수송차량 등은 농장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부득이하게 축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농장전용 장화로 갈아신은 후 출입토록 해야 한다.

5. 근본적인 해결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그 동안 오리산업은 참살이 열풍 등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기호 변화로 오리수요가 폭발적 증가함에 따라 질적 수준 향상을 배제한 양적성장에만 치중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축사의 경우 사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밀집사육, 햇볕이 들어 오지 않아 굴 속 같이 컴컴한 내부, 환기가 되지 않아 눈을 뜰 수도 숨을 쉬는 것도 힘든 축사공기 등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오리가 건강하게 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 오리에서는 AI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공장식 사육을 탈피하여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먼저 축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 동안 오리는 질병에 강하고 사육하기가 손쉽다는 인

식으로 대부분이 파이프축사이며 일부 농가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축사로 이용함으로써 온도, 환기, 단열시설 등이 불충분하다.

노후된 축사는 지난 2008년 보급된 오리표준축사설계 도서에 준하여 개·보수를 하고 비닐하우스형 간이축사 역시 동물복지형 오리사육을 위해 기존 시설의 지붕을 햇볕 투과형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일시에 입식하고 일시에 출하하는 올인올아웃 시스템을 적용하자.

오리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사육두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순환사육으로 축사를 소독하고 건조할 기간이 없어 집에 따라 각종 병원균이 상재하고 있어 가족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0년에 전남지역 오리농장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살모넬라, 대장균 등 세균성 질병에 의해 종오리에서 산란율이 90%까지 감소하고 30일령 이후의 육용오리에서 20~30%의 폐사가 발생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또한, 무리한 연속사육으로 인해 축사소독이 미흡하고 바닥 깔짚이 각종 병원성 세균에 오염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반드시 일시 출하 후 소독, 깔짚 건조 등 충분한 입식준비를 한 다음 재입식해야 한다.

③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자.

가족의 과밀사육은 사양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축축한 바닥, 악취, 각종 유해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병 등 전반적인 사육환경의 저하로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된다. 가족이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자연면역력을 증가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6. 맺음말

오리산업은 국민식생활의 변화와 건강식품에의 관심증가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오리산업은 우리나라 농림산물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 상위 10대품목 중 7위에 해당되며 축산업의 5대 품목에 진입하는 등 참살이 식품으로서의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축산업계내에서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전남도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구태의연한 관행축산에서 탈피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에 모든 정책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족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환기 등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가족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축시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자연면역력을 강화하는 축산형태를 말한다.

가족의 생태를 존중해 가족 스스로 자연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복지형 축산만이 날로 증가하는 가족전염병을 대응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함으로써 앞으로 다가 올 FTA 등 거센 수입개방 물결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최선의 방법이라 본다.